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2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대표단이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허리케인 피오나 복구 노력을 평가한다고 발표

대표단은 Robert Rodriguez 주무장관이 주도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행정부 관계자들이 폭풍 복구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허리케인 피오나(Hurricane Fiona) 복구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의 복구 및 회복 노력을 지원하려는 Hochul 주지사의조치 중 하나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허리케인 피오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능한 추가 지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오늘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해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 행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립니다."

뉴욕 대표단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bert Rodriguez 주무장관
- Edgar Santana 주지사 차관
- Sophia Zayas 라틴계 담당 국장
- Marcos Gonzalez Soler 공공 안전 차관

Robert J. Rodriguez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난이 닥치면, 뉴욕은 언제나가장 먼저 푸에르토리코의 주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저는 이번 대표단의일원으로 직접 허리케인 피오나 피해를 입은 푸에르토리코의 주민들을 만나볼 수 있게되어 기쁩니다. 뉴욕 주민 중 다수가 푸에르토리코에 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푸에르토리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있는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Hochul 주지사는 <u>50명의 뉴욕주 순찰대원(New York State Troopers)</u>이 푸에르토리코의 허리케인 피오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파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Hochul 주지사는 허리케인 피오나의 여파로 푸에르토리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참여시키기 위한 <u>새로운 조치</u>를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는 ATM 수수료 및 연체료 면제와 ATM 인출 한도 확대, 자금 이체 조장 및 촉진 등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상공인들을 돕는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뉴욕주 면허 은행들에게 촉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푸에르토리코의 가족과 친구들을 지원하려는 많은 뉴욕 시민들뿐만 아니라 뉴욕 은행 계좌를 가진 푸에르토리코의 모든 사람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또한 <u>FEMA 브리핑에 Biden 대통령</u> 및 Pierluisi 주지사와 함께 출석하여 다시 한번 뉴욕의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뉴욕은 푸에르토리코가 FEMA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연방 기금을 확보하여 섬의 에너지 인프라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NYPA는 섬의 발전소 및 변전소에 대한 기술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허리케인 마리아 이후 섬을 강타한 최악의 폭풍인 허리케인 피오나의 여파로 Hochul 주지사는 푸에르토리코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푸에르토리코의 재건과 회복을 돕겠다는 뉴욕의 오랜 헌신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u>www.governor.ny.gov</u>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